

한국어의 서술절 설정 연구 : 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이 은 회*

이 현 주**

1. 머리말

하나의 단문에 주격 형태로 보이는 ‘이/가’가 거듭 나타나는 예문 (1)과 같은 현상은 한국어 발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장이다.

(1) 코끼리가 코가 길다.

이러한 형태의 문장은 일반적으로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주어-목적어-동사(SOV)] 유형의 언어에서는 나타나지만, 영어와 같은 [주어-동사-목적어(SVO)] 유형의 언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이

* 한성대 교수

** 한성대 석사과정

1) Li, Charles·Sandra Thompson(1976 : 480)은 언어 유형과 주어, 주제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겹주격(double subject) 현상이 있는 언어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이라고 하였다. 중국어는 SVO 형식의 언어이지만 격형태가 발달하지 않은 고립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러한 언어 현상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야기해 왔다.

학교 문법은 주격 형태로 보이는 ‘이/가’가 거듭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서술절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²⁾ 국어 교육 연구소(2002 : 164)에서는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서술절을 ‘안은 문장’은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래 제시한 예문 (2)는 국어 교육 연구소(2002)에서 제시된 것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서술절에 해당한다.

(2) 가. 정아가 얼굴이 예쁘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

학교 문법의 설명 방식에 따라 서술절을 안은 문장을 해석해 보면 (2가)에서 ‘얼굴’의 서술어는 ‘예쁘다’이고, ‘정아’의 서술어는 ‘얼굴이 예쁘다’이다. (2나)도 ‘인정’의 서술어는 ‘많으시다’이고, ‘할아버지께서는’의 서술어는 ‘인정이 많으시다’이다. 학교 문법은 서술절 중심의 설명 방식을 택함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문장에 대하여 주격 중출이나 이중 주어 논의와 같은 다른 설명에 대한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문법의 설명 방식은 절 표지와 관련된 문제, 상위문 주어의 자리 이동에 관한 문제, 주어와 술어 사이의 선택 제약 문제, 단문과 복문의 문제 등 문법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문법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서술절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론적 문제점과 학교 문법에서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겠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전통문법

2) 본 논문에서는 “주격”과 “주어”라는 용어는 구분하여 사용하겠다. ‘이/가’가 붙을 수 있는 체언은 우선 주격이라 하고, 그것이 주어 기능을 할 경우에만 주어라고 한다. 특히 주격중출문의 경우에 둘이나 그보다 많은 주격 체언이 모두 주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격과 주어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송석중 1967, 남기심 1968, 박순함 1970, 서정수 1971).

적인 시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성문법이 도입되면서 활발히 이루어진 서술절 설정과 관련된 기존 논의를 검토하겠다. 3절에서는 서술절 설정의 기존 논의에 대한 논거를 재검토함으로써 이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4절에서는 서술절 설정과 관련된 학교 문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2. 기존 논의 검토

서술절 설정과 관련된 논의는 전통문법 시기에서부터 제기되다가 생성문법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전통문법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은 주격중출문에 대해서 표면적인 구조를 대상으로 하여 직접구성성분으로 분석 문제를 다루었다. 직접구성성분은 표면에 드러난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므로, <이러한 시각에서 이루어진 서술절 구문 처리³⁾>에 대한 논의는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형태 중심의 기술은 주격 표지 ‘이/가’가 중출해서 나타날 경우에 NP1과 NP2의 기능이나 의미보다는 형태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어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성문법이 한국어학에 도입된 이후에 문장의 구조를 심층구조와 표층구조로 나누어 다루고, 격이론⁴⁾을 수용함으로써 서술절 구문 처리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펼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대소 주어설, 대소 관계설, 기저적 단일 주어설, 주제어설, 다주어설, 다기능어설 등이 있다.⁵⁾

3) 이 논문은 학교 문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서술절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격중출문을 ‘서술절 구문 처리’라는 용어로 다루기로 한다. 다만 기존의 연구 논문을 인용할 경우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주격중출문’, ‘이중 주어문’, ‘문서술어 복합문’ 등 여타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4) 현재 학교 문법에서 그러하듯이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를 나타내는 전통문법적인 격이 아니고, 모든 행동이나 사태의 표현을 구성하는 행위자, 대상, 처소 따위의 기본 의미와 관련된 요소들을 가리킨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역은 어떤 언어에나 공통적으로 있게 마련이므로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여긴다(서정수 2006 : 1429).

5) 서술절 구문 처리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이미 많은 논문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

우선 서술절 구문 처리와 관련하여 전통문법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전통문법에서 서술절을 인정하는 논의는 전통이 오래되었다. 김두봉(1922), 최현배(1937), 정인승(1965) 등이 서술절을 인정하는 초기 논의들이다. 초기 논의는 주격 중출시 둘째 주격 명사구는 서술절을 이루어 첫째 주격과 복합문을 이룬다고 보았다. 즉 주격 중출시 첫째 주격은 뒤의 서술절을 내포한 포유문의 주어가 된다는 견해이다.

(3) 가. 그 사람이 힘이 세다.

나. 한강은 물이 많다.

다. 그 꽃이 향기가 좋다.

김두봉(1922)에서 (3가)의 ‘그 사람’과 ‘힘’을 각각 큰임자와 작은 임자로 부르고, 작은 임자는 조각마디의 임자라고 하여 서술절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최현배(1937)에서는 (3나)의 ‘물이 많다’를 풀이말(서술어) 같이 쓰이는 마디라고 하여 (3나)가 서술절 내포문임을 분명히 하였다. 정인승(1956)에서도 (3다)에서 ‘향기가 좋다’를 마디로서 월의 풀이말 기능을 한다고 하여 서술절을 인정하였다(임동훈 1997 : 55).

전통문법에서는 대부분 서술절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표면 구조의 형태를 중심으로 문법을 기술하였기 때문에 ‘이/가’의 형태를 주어-주격의 일대일 관계로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진 시기는 표면적인 격 표지에 상관없이 심층적으로 의미 관계(의미격 혹은 심층격)가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술절 구문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명시적으로 취하지 못하였다.⁶⁾

생성문법이론이 도입되면서부터 서술절 구문 처리에 대한 연구가 다시

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는 서술절 설정과 관련한 논의 이외에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서술절 구문 처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서정수(1996)를 참고할 수 있다.

6) Fillmore(1966, 1968)의 격문법(Case grammar)은 한국어 문법에 있어서 박순함(1970), I.Yang(1971), 김영희(1973), 성광수(1974) 등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접근 방향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서술절 설정을 인정하는 견해로는 박병수(1938)⁷⁾, 성기철(1987), 임동훈(1997)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로 서술절 설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서정수(1971), 임홍빈(1974), 남기삼(1986), 이관규(1994)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 중 성기철(1987), 남기삼(1986), 임동훈(1997)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서술절 설정에 대한 시각을 고찰해 보겠다.

우선 성기철(1987)에서 제안한 논의를 살펴보겠다. 여기서 서술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문서술어 복합문(서술절설)에서 두 번째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 성분이 하나의 단어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문 (4)의 밑줄 친 부분은 (4)에서 보듯이 하나의 단어로 실현되기도 한다. 성기철(1987)에서는 (4)에서 밑줄 친 부분을 하나의 내포된 절로 가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4) 가. 너도 배가 아프냐?
 가'. 너도 배아프냐?
 나. 철수는 책임이 없어.
 나'. 철수는 무책임해.
 다. 요새 배추는 값이 헐하다.
 다'. 요새 배추는 헐값이다.

둘째, 예문 (5가)에서 보듯이 ‘-시-’가 문두의 성분을 존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존대 현상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서술절 구문을 문서술어 복합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이다. 만약 문두의 성분을 주어로 보지 않고 주제로 본다면 ‘-시-’가 주어 ‘-시-’에 대한 일관

7) 이 논문은 중주어구문의 의미적 고찰이므로 이 논의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기로 한다.

8) 남기삼(1986)에서 제시한 논거 외에 이관규(1994)에서는 서술절을 안은 상위 문장의 전체 주어가 주격 조사 ‘이/가’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성 있는 해석이 힘들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5가)는 ‘-사-’가 문두의 ‘정 선생님’을 존대하는 예이고, (5가)는 ‘-사-’가 내포된 서술절의 주어인 ‘부모님’을 존대하는 예이다. (5가)에서 존대되는 ‘부모님’이 주어이므로 (5가)의 문두 성분 역시 주어로 해석될 수 있으면 ‘-사-’는 주어를 존대한다고 일관되게 기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5) 가. 정 선생님은 부모님이 있으셔.

가. 정 선생님은 부모님이 제셔.

서술절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논의로 남기심(1986)에서 제안한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서술절을 설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서술절은 다른 내포문과 달리 절 표지가 없다는 것이다.⁹⁾ 한국어에서 다른 내포문은 모두 내포문의 표지가 있으나 서술절은 고유의 절 표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타당성을 지닌다. 이에 대해 성기철(1987), 임동훈(1997)에서는 서술절은 구조적으로 문미의 어말 어미가 서술절 내포문의 표지를 겸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둘째, 다른 내포문은 관형사절, 명사절처럼 품사의 명칭에 따라 명명되었으나 서술절은 그 기능에 따라 명명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근거는 서술절이란 명칭에 대한 것으로써 첫째 근거와 마찬가지로 서술절의 특이성에 그 초점을 둔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내포문에서는 상위절의 어떤 요소도 내포된 절 속으로 자리를 이동 할 수 없는데, 서술절은 이러한 자리 이동이 가능하기 때

9) 서정수(1971)에서는 문장 형식을 갖춘 절이 그 앞의 한 명사구와 직접 어울려 복합문을 이루는 구문 현상은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임흥빈(1974 : 115)에서는 한 문장이 어떠한 변화도 입음이 없이 다른 문장 속에 포유될 수 있다는 것이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서정수(1994 : 155)에서는 서술절의 절 표지가 없는 것은 내포된 절이 아니라 한 독립된 문장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에 절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예문 (6)과 (7)은 각각 명사절과 관형사절이 내포된 복문이다. 남기심(1986)의 주장대로 이들 문장에서 상위절이 내포문으로 이동한 (7)은 비문이거나 아주 어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술절의 경우는 (8)의 경우처럼 자리 이동이 가능한데, 이러한 사실은 서술절이 내포문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6) 가. 나는 그가 범인임을 알고 있었다.

가'. *그가 나는 범인임을 알고 있었다.

(7) 가. 경찰은 죄수가 탈옥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가'. *죄수가 경찰은 탈옥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8) 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

가'. 코가 코끼리는 길다.

넷째,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는 선택 제약이 존재하는데, 서술절의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는 이러한 제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문 (9)에서 ‘피아노’는 ‘숨쉬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다. ‘숨쉬다’는 유정물을 가리키는 명사를 주어로 가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술절을 가진 문장은 그 전체 주어와 서술절 사이에 이러한 선택 제약을 논할 수가 없다. (8)의 예문에서 ‘길다’는 ‘코’와 선택 제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코끼리’와의 선택 제약은 ‘코가 길다’와의 관계에서 논해져야 하지만 ‘코가 길다’는 이미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므로 어떠한 선택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¹⁰⁾

10) 이은정(1994)에서는 학교문법에서 서술절절을 복문으로 처리하는 기술에 대하여 (8가)의 예문을 제시하여 모형문 S1의 서술어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밝히고, 위와 같은 문장을 단문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9) *피아노가 숨는다.

서술절 설정을 인정하는 임동훈(1997 : 57-60)에서는 이중 주어문의 범위를 설정할 후 성기철(1987)의 논의를 뒷받침하면서 남기심(1986)에서 제안한 서술절 부정론에 대하여 다음의 네 가지 논거를 통해 재반론을 하고 있다.

첫째, 한국어에서 서술절은 구조적으로 절 표지를 가질 수 없으므로 서술절 고유의 절 표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술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 (10)의 예문을 들어 문미의 어말 어미가 두 개 이상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 서술절의 특징이라는 견해를 받아 들여 (10가)의 구조를 (10다)로 보았다.¹¹⁾

(10) 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

나. [코끼리는 길-다-다]

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둘째, 서술절을 본격적으로 주장한 최현배(1938 : 986)에서는 서술절이란 명칭 대신에 용언절(用言節, 풀이마디)이란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명사절을 체언절로 부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서술절이란 명칭에 대한 비판은 반론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든다.

셋째, 다른 절과 마찬가지로 서술절은 상위절 성분이 내포문의 내부로 이동하게 되면 어색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11) 임동훈(1997)에서 제안한 (10)의 예문은 문미의 어말 어미가 내포문의 표지를 겸한다는 것이다. 임동훈(1996 : 146)에서는 (10가)의 구조를 (10나)와 같이 보고 서술어에는 어말 어미가 두 개 이상 결합할 수 없다는 통사 제약에 따라 (10나)가 (10다)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절 표지가 따로 없다는 것이 서술절의 특징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여 임동훈(1997)에서 이론을 수정하여 (10가)의 구조를 (10다)로 보았다.

- (11) 가. 나는 [그가 범인임]을 알고 있었다.
 가'. *그가 나는 범인임을 알고 있었다.
 나. 우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나'. *사람이 우리는 살지 않는 섬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다. 우리 집은 [마당이 좁다].
 다'. ?? 마당이 우리 집은 좁다.
 라. 김 선생은 [자기가 직접 차를 운전한다].
 라'. *자기가 김 선생은 직접 차를 운전한다.

예문(11가, 나)는 명사절과 관형사절이 내포된 복문이다. 남기심(1986)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서술절 이외의 명사절과 관형사절 내부의 이동은 (11가, 나)와 같이 모두 비문이거나 아주 어색하다. 그러나 임동훈(1997)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11다)와 같이 서술절도 마찬가지로 반론을 한다. (11다)는 상당히 어색하며, (11라)는 성립되는 것조차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 이중 주어문에 쓰인 ‘-사-’의 용법을 남기심(1986), 임흥빈(1990)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든다. 다음 예문 (12)에서 보듯이 내포된 서술절에 결합한 ‘-사-’는 서술절의 주어와 관련지어 해석되고, 상위절의 서술어에 결합한 ‘-사-’는 상위절의 주어와 관련지어 해석될 뿐, 내포된 서술절에 결합한 ‘-사-’가 상위절의 주어와 관련지어 해석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았다.

- (12) 가. 삼촌은 형님이 있으시다.
 가'. [[삼촌은]_{NP1} [[<형님이>_{NP2} <있>_{VP}] -사-] -다]
 가''. [삼촌은 [형님이 있으시다]_S]
 나. 삼촌은 형님이 계시다.
 나'. [삼촌은]_{NP1} [<형님이>_{NP2} [<계-> -사-]]_S -다

(12가)의 ‘-사-’는 첫 번째 명사구인 ‘삼촌’과 관련지어 해석되고, (16나)의 ‘-사-’는 두 번째 명사구인 ‘형님’과 관련지어 해석된다. 임동훈(1997)

에 따르면 남기삼(1986), 임흥빈(1990)에서는 (12가)의 구조를 (12가')으로 보는 견해가 서술절 내포문인 것처럼 이해하였으며, 서술절 내포문설은 (12가)의 구조를 (12가')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반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2나, 나)은 '계시-'의 '-시-'가 서술절의 주어인 '형님'과 어떻게 관련지어 해석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때의 '-시-'는 '형님이 계-'라는 절 단위에 결합한 것이 아니라 '계-'라는 단어 단위에 결합한 것으로 보고, 성기철(1987)에서 서술절 성립의 근거로 제안한 '-시-'에 대한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격중출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서술절 설정과 관련된 기존 논의를 살펴보았다. 전통문법적인 시각에서는 서술절의 개념을 수용하여 주격중출문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접근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생성문법이론이 도입되면서부터 서술절 구문 처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시도되었다. 본 장에서 대표적으로 다루었던 남기삼(1986), 성기철(1987), 임동훈(1997)의 견해를 통해 서술절 구문 처리에 대한 주어-서술어 일치소의 문제, 절 표지의 문제, 선택 제약의 문제 등이 제기된 것을 알 수 있다.

3. 이론적 문제점

지금까지 서술절 구문 처리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을 검토해 보면 현행 학교문법에서 서술절을 인정하는 방식은 이론적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기 쉽다.¹²⁾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서술절 설정을 단순히 인정하기에는 기존의 논의에 대한 부적절한 근거들이 발견된다. 서술절을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 논의라 할 수 있는 성기철(1987)과 임동훈(1997)에서 제시한 논거를 중심으로 서술절 설정에

12) 학교문법의 서술절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안건 문장과의 차이라는 간단한 설명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서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성기철(1987)에서 서술절 설정을 뒷받침하는 예로 제시된 두 가지 논거에 대하여 검증해 보기로 한다.

첫째, 성기철(1987 : 370~371)이 제안한 (13)의 예문은 문장의 구성 및 의미가 하나의 단어로 축약되어 서술어가 되고, 이 문장이 서술어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함을 확인시키고 있다.¹³⁾

(13) 가. 너도 배가 아프냐?

가'. 너도 배아프냐?

나. 철수는 책입이 없어.

나'. 철수는 무책입해.

다. 요새 배추는 값이 헐하다.

다'. 요새 배추는 헐값이다.

그러나 (13가)에서 ‘배가 아프다’가 (13가')에서 하나의 형용사인 ‘배아프다’로 축약되는 현상은 한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배고프다’, ‘배부르다’, ‘배다르다’의 경우처럼, 하나의 형용사로 인식되어 일상적인 언어 사용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은 통사적 축약 현상보다 단어 형성법의 한 예로 다루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성기철(1987)에서는 (13나)와 (13다) 예문이 (13나')와 (13다')의 변형으로 유도되는 가능성 외에, (13나)와 (13다)의 원형 그 자체가 이중 주어 구문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13나)와 (13다)의 변형은 한국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의 어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어의 일반적인 언어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이중 주어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보인다. 만약 성기철(1987)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하더라도 복문과 단문의 문제에 또 다시 부딪치게 되어 서술절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

13) 앞에서 제시한 예문으로 읽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다시 한 번 제시한다.

둘째, 성기철(1987)에서 제시한 (14)의 ‘-사-’에 대한 예문은 논의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14) 가. 정 선생님은 부모님이 있으셔.

가. 정 선생님은 부모님이 계셔

이는 임동훈(1997)에서 제시한 이중 주어문의 범위 설정 가운데 ‘철수가 키가 크다’류의 이중 주어문에만 해당되어 충분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문두의 성분을 주어로 보면 ‘-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성기철(1987)의 주장은 첫 번째 명사구를 주어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의를 뒷받침해 줄 수는 있어도 주격중출문이 서술절이라는 논의를 뒷받침해준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임동훈 1997 : 56-57).

다음으로 남기심(1988)의 논의에 재반론을 하고 있는 임동훈(1997)의 논의에서 제시된 논거를 대상으로 그 이론적 타당성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첫째, 임동훈(1997)에서는 서술절 절 표지의 부재에 대하여 (15)의 예문을 들어 서술절 부정론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15) 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

나. [코끼리는 코가 길-다]-다.

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임동훈(1997)에서 제안한 (15다)와 같은 예문 구조는 [코가 길-]이 S라고 하는 주장인데 어미 ‘-다’가 절 S를 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15다)와 같은 구조는 가능하지 않다. 만약 ‘-다’를 CP의 C와 같은 절도입요소로 인정하더라도 ‘-다’는 IP를 인가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내포문 S를 바로 인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15다)와 같은 구조는 불가능하다.

둘째, 임동훈(1997)에서는 상위절 성분이 내포문의 내부로 이동해서 어색해지는 것은 서술절도 마찬가지라는 견해를 (16)의 예문을 통해 밝힌다.

- (16) 가. 우리 집은 [마당이 좁다].
가'. ?? 마당이 우리 집은 좁다.

임동훈(1997)에서는 (16가)의 예문을 아주 어색하다(?)고 하였으나 보편적인 언어 직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금 어색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마당은 우리 집이 좁다’처럼 조사를 바꿔주더라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는 문장이다.

그러나 임동훈(1997)에서는 (16가)의 예문이 정문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 집은’이 서술절 내부로 이동한 구문이 아니라 ‘꽃은 장미가 좋다’와 ‘장미는 꽃이 좋다’의 관계처럼 기저 구조에서부터 구별되는 구문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논의에 대한 근거로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꽃’과 ‘장미’의 관계는 상위어-하위어 개념으로써 의미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 집’과 ‘마당’은 의미망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16가)의 예문은 통사 규칙의 설정이 가능하다. 통사 규칙은 일반적으로 의미에 관계없이 보편성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⁴⁾ 특히 임동훈(1997)의 논의는 (16가)의 예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만 통사적 구조에 의미론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절 부정론에 대한 반례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¹⁵⁾

- (17) 가. 김 선생은 [자기가 직접 차를 운전한다].
가'. *자기가 김 선생은 직접 차를 운전한다.

14) Katz·Foder(1965)와 같이 기저의 의미 구조를 설정하는 생성의미론은 이미 해석의 미론에 의해 완전히 부정되었다.

15) 유형선(1996)에서는 ‘꽃이 장미가 예쁘다’ 예문을 통해 ‘꽃’과 ‘장미’가 의미상 상하위관계에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때 ‘꽃’은 서술어로부터 의미역을 부여받지 못하므로 ‘주제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고광주(2001)에서는 위와 같은 유형에 언급대상성(aboutness)의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꽃’의 성분이 주제(topic)의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셋째, (17가')의 예문은 '자기'가 이동함으로써 비문이 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결속 문제로 '재귀대명사(reflexive), 상호대명사(each other), NP-trace'는 각기 그 지배범주 안에 결속되어야 한다(Chomsky 1981)'는 결속이론 A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¹⁶⁾ 이 문장의 의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김선생님'은 뒤에 '자기'이 외에 올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문장은 제약 관계가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17가')를 '자기'의 자리 이동에 의한 비문이라고 설명한다면 (17가')도 '자기' 외에 다른 명사로 대체하면 비문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주격중출문을 설명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술절을 단순히 인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론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서술절 설정을 인정하는 성기철(1987)과 임동훈(1997)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성기철(1987)에서 제안한 논의는 두 번째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의 단어로 축약되는 현상과 문두의 성분을 주어로 보는 데 뒤따르는 '-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임동훈(1997)에서는 내포문의 표지를 겸한다는 문미의 어말 어미와 상위절 성분이 내포문으로 자리 이동할 때 발생하는 비문 현상을 제시하여 서술절 설정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논거는 서술절 설정을 인정하는 데 충분한 설득력을 제시하지 못한다.

16) 최형강(2002)에서는 서술절 구문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복수 표지 '-들'이나 주체 존대 표지 '-사-'와의 호응 관계를 살피는 것, 재귀대명사 '자기'와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들'은 주어에만 관련되는 요소가 아니며, 수량사에는 '-들'이 붙을 수 없다는 점과 '-사-' 역시 주어가 아니라 경험주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을 때 서술절 구문에서 주어를 확인할 수 있는 절대적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4. 학교 문법에서의 문제점

학교 문법은 흔히 학문문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제시된다.¹⁷⁾ 학교 문법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교수·학습되는 교육용 문법이다. 이러한 학교 문법의 특성은 교육과정 체계를 검토해보면 잘 드러난다. 현행 학교 문법의 교육 목표는 ‘국어에 대한 탐구 과정을 통한 통찰력과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언어와 국어의 문화적 가치 및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고 나타나 있다.

학교 문법의 내용이 국어에 관한 언어학적 지식 체계로 구성된다면 학교 문법은 학습자에게 체계적인 문법 이론과 실용성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용성은 언어생활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문법내용을 말하는데, 학교 문법에서는 규범성을 강조하면서 실용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다보니 문법 이론의 체계성이 약화되었다. 학교 문법이 체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와 같은 각종 시험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긴다. 한국어의 올바른 언어 사용은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 문법에서 서술절 설정은 체계적인 기술이 기반 되어야 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을 통해 한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학습자의 언어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학교 문법은 서술절을 설정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학교 문법의 체계성과 관련된 서술절 자체의 문제이다. 학교문법에서는 최현배(1937)에서 제안한 서술절 설정을 그대로 인정하여 형태 중심으로 주격중출문을 기술하고 있다. 형태 중심으로 문장 성분을 다루게

17) 학교 문법과 학문 문법은 흔히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학교문법은 교육과정 목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문 문법과 완전히 대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임지룡 외 2005 : 26).

될 경우 언중의 언어 직관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남기삼(1988), 서정수(1971), 임흥빈(1974) 등에서 지적하였듯이 서술절은 절 표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절의 형태로 보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복문과 단문의 체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 학교 문법은 ‘다른 안긴 문장과와의 차이’라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을 뿐이다.

둘째, 서술절 설정과 관련된 문장 성분 설정의 문제이다. 학교 문법의 이론적인 체계 방식으로 인하여 문장 성분의 하나인 보어와 부사어의 체계성에도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학교 문법에서 정의내리는 보어는 ‘되다/아니다’와 같은 불완전 서술어의 주체인 주어와 동작 대상인 목적어 이외에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주성분이다.¹⁸⁾

학교 문법은 보어를 필수적인 성분으로 다루고, 부사어를 부속 성분으로 다루고 있지만 필수적 부사어로 다루고 있는 예문(18)은 보어와 같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8) 가. 피망은 고추와 다르다.

나. 그 놈, 멋지게 생겼네.

다. 선생님께서 너에게 선물을 주셨다.

학교 문법은 이와 같이 세 자리 서술어를 필수적 부사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분 설정에 있어서는 부속 성분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모순이 생기게 된다.

셋째, 학습자의 올바른 언어 사용에 도움을 주는가의 문제이다. 학교 문법의 서술절 설정은 학습자의 이해보다는 단순한 암기를 요구하게 된다. 문법 교육이 암기해야 하는 과목이라면, 이는 결과 중심 수업으로 학

18) 보어는 주어와 마찬가지로 주격 형태인 ‘이/가’에 의해 나타난다. 그러나 현행 학교 문법은 문장 성분을 기초로 하여 격을 파생적으로 정의하는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격 형태라 할지라도 ‘이/가’를 주격조사와 보격조사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습자 중심이 아닌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이 되어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 어긋나게 된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심화되어 제시된 『문법』 교과와 탐구 활동 문제는 학습자의 사고와 추론을 도모하기 보다는 오히려 체계적인 문법 학습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학교 문법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서술절 설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언어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명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교 문법 기술자들도 주격중출문에 대한 다양한 처리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서술절이 들어 있는 문장을 중주어문장이라 하는 학자도 있고, 서술절이 들어 있는 문장의 주어를 주제어로 보는 사람도 있다. (중략)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학설을 취하지 않았다’는 『교사용 지도서』(1985 : 123)의 언급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서술절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맨 앞에 나오는 NP1을 주제어로 처리하기도 한다’라고 하여 역시 서술절 설정과 다른 관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문법은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문법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학교 문법은 한국어의 특수한 언어 현상인 주격중출문에 대하여 ‘서술절이 안긴 문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절은 다른 절과 달리 절표지의 문제, 선택 관계의 문제, 단문과 복문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술절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는 다양한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논의는 2절에서 서술절과 관련된 기존 논의를 검토해보았다. 전통문법적인 연구에서 시작하여 생성문법이 도입된 이후까지 살펴보았는데, 전통문법에서의 연구는 김두봉(1922), 최현배(1937), 정인승(1956) 등에서 시작하여 대체로 형태적인 측면에 서술절을 단순하게 받아들였고, 생성문법이 한국어학에 도입된 이후의 연구는 한국어의 특수한 언어 현

상을 보편 문법적인 관점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서술절 설정을 인정하는 견해로는 대표적으로 성기철(1987), 임동훈(1997)의 논의를 검토하였고, 서술절 설정을 반대하는 견해로는 서정수(1971), 임홍빈(1974), 남기삼(1986), 이관규(1994)의 논의를 살펴 보았다.

3절에서는 서술절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대표적으로 성기철(1987)과 임동훈(1997)의 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기철(1987)에서는 서술절 설정의 논거로 두 번째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의 단어로 축약되는 현상과 문두의 성분을 주어로 보는 데 뒤따르는 ‘-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임동훈(1997)에서는 성기철(1987)의 논거를 보충하면서 서술절 부정론의 대표적 논의인 남기삼(1988)의 견해에 재반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술절 설정을 인정하는 데 유일한 설득적 설명 방식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4절에서는 서술절 설정과 관련된 학교 문법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학교 문법의 체계성과 관련된 서술절 자체의 문제, 서술절 설정과 관련된 문장 성분 설정의 문제, 학습자의 올바른 언어 사용에 도움을 주는가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본 논의는 서술절 설정과 관련된 이론적 문제점과 학교 문법에서의 문제점을 고찰하는데 그쳤다. 앞으로는 서술절 설정과 관련된 학교 문법의 재체계화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문법 교육의 기본적인 장인 학교 문법이 체계적인 통일성과 실용성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창수(1992). “동사구의 지정어”, 『언어』 17.
- 권정현(2006). “주어의 의미역 연구”, 한성대 석사학위논문.
- 김두봉(1922). 『김씨조선말본』, 상해 새글집.
- 김영만(1986). “국어의 서술절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 남기삼(1988). “서술절의 설정은 타당한가”,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 국어 교육 연구소(2006). 『문법』, 교육 인적 자원부.
- 대동 문화 연구원(1985). 『문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박병수(1983). “문장술어의 의미론”, 『말』 8.
- 박순함(1970). “격문법에 입각한 ‘겸주어’에 대한 고찰”, 『어학연구』 6-2.
- 박승빈(1935). 『조선어학』, 조선어학연구회.
- 서정수(1971). “국어의 이중주어문제-변형 생성 문법적 분석”, 『국어국문학』 52.
- 서정수(1994).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 성광수(1974). “국어 격문법 시론(I)-격설정, 주제화, 목적어 및 보어에 대하여”, 『인문논집』 19.
- 성기철(1987). “문서술어 복합문”, 『국어학』 16.
- 송석중(1967). *Some Transformational Rules in Korea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ndiana.
- 안자산(1917). 『조선문법』, 회동서관.
- 양명희(2006). “보어와 학교문법”, 『한국어학』 32.
- 유길준(1909). 『대한문전』, 동문관.
- 유형선(1996). “국어의 주격 중출 구문에 대한 통사·의미론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이관규(2002). 『학교 문법론』, 월인.
- 이은희(2004). “한국어 교재의 문법 기술 방식”, 『이중언어학』 25.
- 이석주·이주행(1994). 『국어학개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승령(1969). “주격중출의 문장구조에 대하여”, 『어문학』 20.
- 이은정(1994). “서술절에 대한 고찰”, 『한글새소식』 266.
- 임동훈(1997). “이중주어문의 통사구조”, 『한국문화』 19.
- 임지룡 외(2005).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 임홍빈(1974). “주격중출론을 찾아서”, 『문법연구』 1.
- 임홍빈(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 정인승(1956). 『표준고등말본』, 신구문화사.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최형강(2002). “주격 중출 구성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7.
- Chomsky(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 Foris Publications.
- Li. Charles/Sandra Thompson(1976). "Subject and Topic :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Li,C(ed.). *Subject and Topic*. N.Y. : Academic Press.
- Katz. J.·J. Foder(1965). “The Structure of a Semantic Theory”, *Language* 39